

# 광주은행, 동남아 전진기지 '베트남 자회사 교류' 활성화

### 2022년 이후 JBSV 우수직원 연수 지속 추진 6인 초청 본점 견학...고병일 은행장 비전 공유

지방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이 동남아 전진기지인 베트남 금융권과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14일 "베트남 소재의 해외 자회사인 'JB증권 베트남 (JB Securi

ties Vietnam, 이하 JBSV)'과 교류 활성화 차원으로 2022년 이후 지속 추진 중인 JBSV 현지 우수직원 연수를 올해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뛰어난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수직원 6인을 초청해 광주은행 본점을 견학하고 고병일 은행장과 모회사의 경영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광주은행 자체 스포츠단인 '광주은행 텐텐(TenTen) 양궁단'과 양궁을 실제 체험하고, 광주은행이 메인 스폰을 맡고 있는 '광주FC'의 축구 경기 관람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모회사

의 사회공헌 활동 및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학습하고 몸소 경험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JBSV는 광주은행의 최초 해외 자회사로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며 "JBSV의 미래를 책임질 베트남의 인재들을 직접 만나보게 돼 반갑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특히 "이번 우수직원들은 작년 JBSV의 성공적인 온라인 브로커리지 사업 추진에 크게 이바지한

만큼 이번 한국에서의 연수가 모회사에 대한 이해력 제고와 함께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경험이길 바란다"며 "JBSV의 발전이 곧 광주은행의 성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JBSV가 베트남의 최고 증권사가 되는 날까지 함께 하자"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JBSV는 광주은행의 자회사로 2020년 4월에 설립된 후 첫해부터 독자 시현에 성공했으며, 작년 9월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Finavi (Financial Navigator)의 공식 출범을 통해 증권거래 중개, 마진론 서비스를 갖춘 종합증권사로 한 단계 도약했다.

서비스 개시 첫 해 약 3만명의 신규 고객 모집, 현지 핀테크사와 제휴 협약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사업 확장을 통해 기존의 베트남 기업 투자금융 (IB) 사업과 함께 현지 영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재만 기자



국내산 신품종 '썸머킹 사과'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이 국내산 신품종 사과인 '썸머킹'을 선보인다. 사진은 하나로마트에서 '썸머킹 사과'를 소개하는 모습. <농협유통 제공>

## "어르신 건강하세요"...광주농협 '사랑 가득 초복 복달임' 행사

광주농협본부는 14일 "서창농협이 지난 12일 다가오는 초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사랑가득 행복가득 초복 복달임'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초복을 맞아 무더위에 지친 원로조합원 및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토종닭, 과일, 떡, 김치, 음료수 등을 관내 경로당에 전달해 함께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은 "농업·농촌·농협의 발전은 원로조합원들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해 지역사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서창농협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창농협은 초복맞이 행사와 더불어 어버이날 감사행사, 관내 경로

당 난방용 연료 지원, 원로조합원 체육 행사 지원, 사랑의 쌀·김치나눔행사 등 원로조합원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 순천 제조업 "하계휴가 평균 3.53일"

### 전년 비 0.6일 줄어...23% "휴가 없어" 40% "휴가 상여금 지급"

순천상공회의소는 14일 "최근 156개의 관내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계휴가 실시 여부와 기간 및 상여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0개사 (76.9%)가 하계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36개사 (23.1%)는 휴가 실시 계획이 없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가 기간으로는 평일 기준 3일간 휴가를 실시하는 업체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5일간 실시하는 업체가 23.3%, 4일간 실시하는 업체가 16.7%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40.0%의 업체가 하계휴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18.1%는 아직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1.9%는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 중 금일봉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가 5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5만8천원 감소한 45만8천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업체는 6개사였으며, 기본급의 100% 이상 지급 예정인 업체가 3개사, 기본급의 100% 미만 지급하는 업체가 3개사로 조사됐다.

순천상의 관계자는 "올해 순천 지역 업체는 평균 3.53일의 하계휴가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0.6일 정도 감소한 수준"이라며 "녹색지 않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반영돼 평균 하계휴가 기간과 상여금의 평균 지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 수해 피해 노란우산 가입자 돕는다

### 중기중앙회, 공제금 지급·무이자 대출 등 지원

중기중앙회는 14일 "최근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해를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부금 내에서 2천만원까지 2년 간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납부를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군산시, 구미시 등 최근 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한 노란우산 가입 고객

은 약 5만명에 달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888)에 문의하면 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소득 공제·복리이자 지급·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있어 현재 전국 소기업·소상공인 176만명이 가입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이다.

지난 6월 폐업·노령 등 기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정은솔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 에어컨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 불필요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 선풍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